



진짜 100% 인간 될 수 있는 공부 시급한 시대입니다

이 도량이 비좁아서 여러분이 바깥에 저렇게 전부서 계신 걸 생각하니 죄송하기가 이틀 데 없습니다. 식당이고 어디고 짹짹 들어차면 서도 마당에 저렇게 있어야 하는 여러분께 뭐라고 죄송한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데는 공부라고 하기 이전에 생활이 공부니까 이것 저것을 따지고 자리가 좁다고 해서 안 올 정도라면 그건 공부 다했죠. 진짜 100% 인간 될 수 있는 그 공부가 지금 시급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왜 우리가 정월이면 촛불재를 올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불이 그렇게 귀중하고 그런가 하는 것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기보다는 생명체가 생겨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 있었을까. 우리가 바람과 흙과 물과 이렇게 지내다보니까 그 속에서 세 가지가 모두 한데 협조하는 바람에 그 가운데서 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불이 생겨서 곳곳마다 불이 일어나고 그러니 모두가 지수화풍으로 둘러싸이게 돼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 생명체들이 생겨나게 돼 있고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지수화풍의 수분과 흙과 이 바람과, 바람 이라든지, 공기와 모든 게 종합되지 않는다면 생명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한데 종합됐기 때문에 흙을 갖다가 그냥 오래도록 쌓아놔도 그 흙 속에서 생명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생명체들이 그렇게 해서 창조가 됐다고 하는 거죠.

생명체들이 생겨나기만 했으면 또 뭐 합니까? 생겨나가지고 그 모든 게 조절이 되질 않아서, 크기만 하고 조절을 못하니 차원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뒤죽박죽이 되고 먹는 놈도 그렇고 잡아먹는 놈도 그렇고 무순 차원의 질서라든가 이런 게 없이 모든 게 그렇게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죠. 이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지수화풍도 하나하나가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하나가 그 마음이 있는 거라 모든 게 종합이 돼서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이걸 개혁을 해야만 되겠다.' 말하자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죠. 개혁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이 생명체들로 하여금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즉 말하자면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체, 개혁을 한 거죠.

개혁을 하고 나니까 어떠한 것이 생겼느냐 하면은 질서도 지키게 됨으로써 감각이나 지각이나 시각·촉각·청각·미각 이 여섯 가지에 달하는 문제들이 제각기 등장하게 된 거죠. 차원에 따라서 여섯 가지가 다 등장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여섯 가지가 등장이 된 것도 있고, 차원에 따라서 세 가지만 된 것도 있고 두 가지만 된 것도 있고 한 가지만 된 것도 있고, 그 차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개혁을 한 것은 크고 작은 것을 조절하고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가지고 모든 생물이 살다보니까 그때에 태어났던 생명체들이 개혁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다시 태어난 짐승들은 모두가 소식(小食)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풀

을 먹고 사는 짐승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자기 자신들의 생사를 거론할 수 있게도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는 생사를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천하고 이리다보니까, 제일 나중에는 사람까지 등장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돼가지고 생사를 논의하게 되다보니까 아, 이 불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이 불성이라는 것도 귀중하지만 최초로 우리가 어디서 생겨났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됐죠. 먼저 태어나서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사일들이라든가, 사람이 살아나가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하는 이 생활 도법을 그대로 익히면서 또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연쇄적으로 차원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가 불성이 근중한 줄 알게 됐거든요. 우리 이 불로 인해서 생명체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과거 몇 억겁 전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지수화풍으로써 멍쳐서 지수화풍을 또 먹고 살아, 그런데 지수화풍으로부터 와서 지수화풍으로 또 가, 지수화풍으로 또 가면 사대(四大)가 흩어져버려. 지수화풍 자체가 제각기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소립니다. 즉 말하자면 불바퀴라 불기둥이다 이리다보면 불 하나의 기둥에서, 쉽게 말해 그 불바퀴에서 모든 게 마음이라는 입자가 나간다면 그게 바로 불바퀴가 되고 또 원자가 됩니다. 그렇듯이 인간의 그 생명의 창조도 역시 마음으로써 그 원자, 근본 하나에서 또 입자로 종자를 만들면은 그 종자가 씨가 되고 씨가 돼서 싹이 되

고 싹이 돼서 또 종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퍼진 겁니다. 이걸 한마디 또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삼천(三千)' 하면은, 즉 말하자면 하천세계 중천세계 상천세계 이거를 한데 합치면 삼천이 됩니다. 고거를 한데 합쳐서 삼천이 된다면 '삼천대천(三千大千)' 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전체를 합치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평등한 공법(空法)에 의해서 대천세계가 되는 거죠. 이 대천세계에서 우린 한 부분에서, 지구라는 위성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들 요새 지구별레라고 말할 합디다 마는 지구가 집이 되고 자기 타전이 되고 도량이 돼서, 그냥 같이 너나 할 거 없이 한데 싸여서 돌아가면서 살려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전부 필요로 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는 살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촛불재를 그렇게 하나? 귀중하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의 촛불재를 하는 것은 방편으로써 마음과 더불어 자신과 즉, '자(自)'는 이 몸이 되고 '신(神)'은 자기 불성(佛性)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다 돌아오니 촛불재를 하는 것도 마음에 없으면 그 촛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들질 않게 되죠, 마음에 있으니까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 가설이 돼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한 가정에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그제, 모르는 사람은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것도 모르니 한 가정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전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넓고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도 내 마음이 밝혀지면은 그 마음도 밝혀진다는 얘깁니다. 자식을 둔 사람들은 또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습니다. 부모라는 가설이 돼 있고, 그것이 자연의 마음의 가설입니다. 우리가 전기 가설을 하지 않으면은 불이 안 들어오듯이 우리가 스스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가설이 돼 있는데 형제간에는 부모와 자식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덜 가는 겁니다. 친척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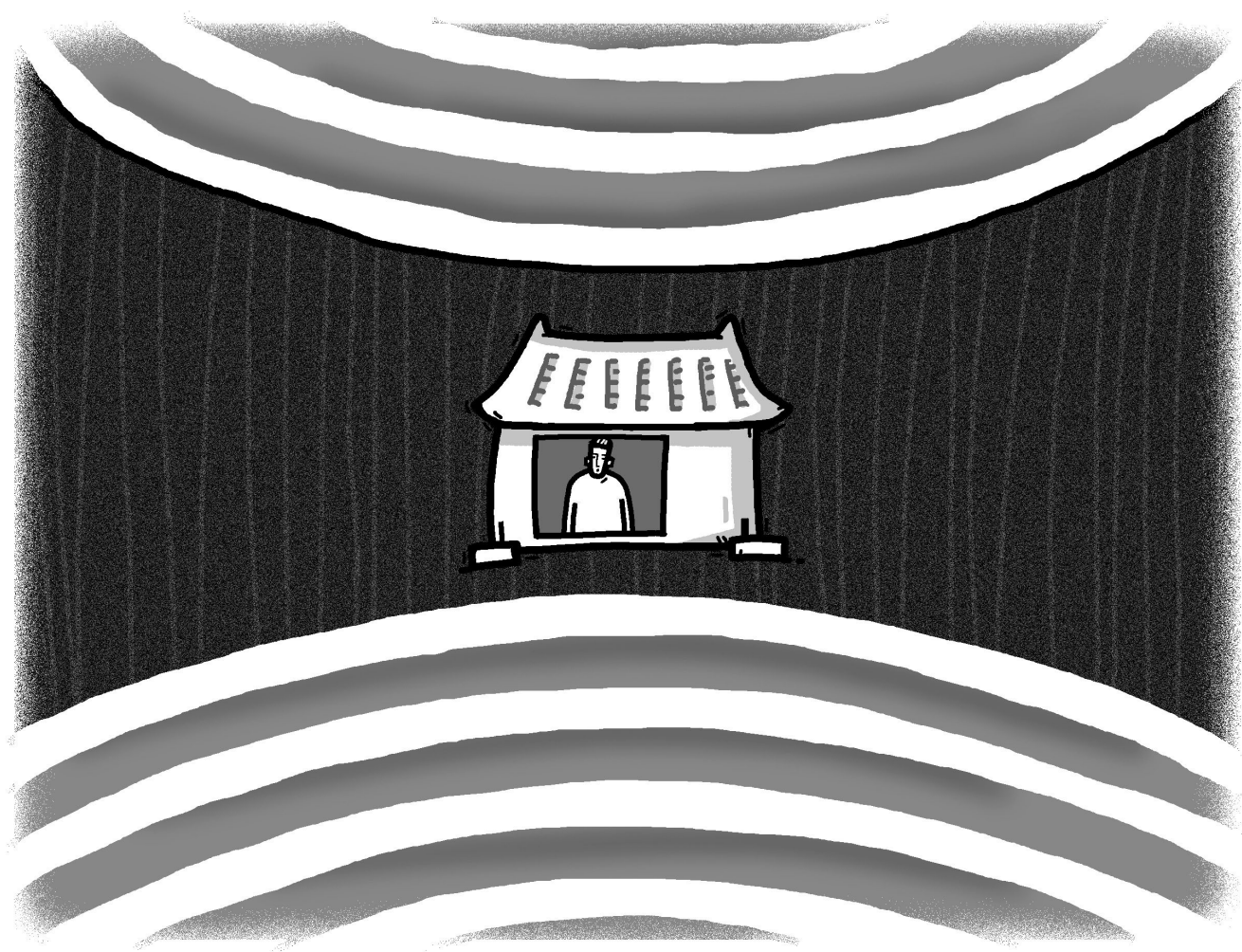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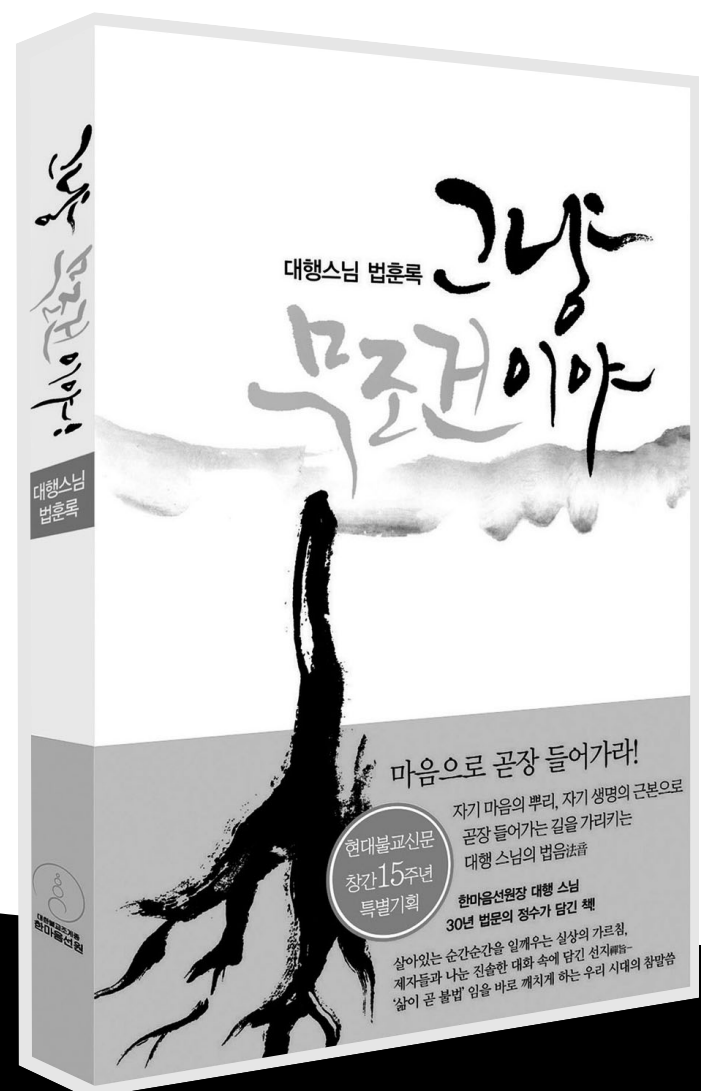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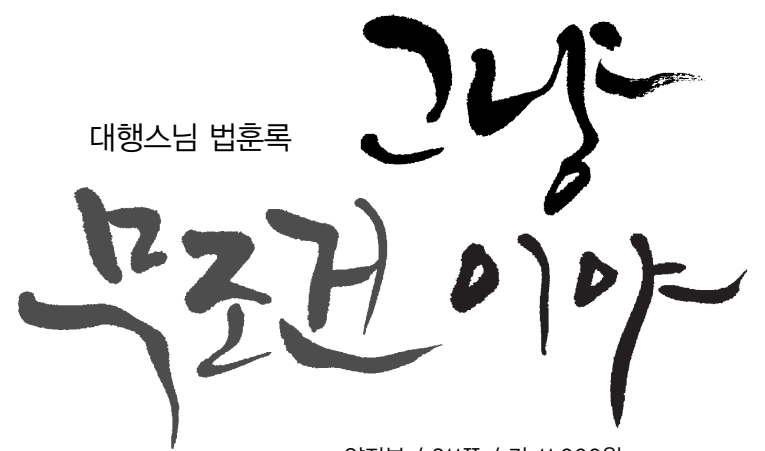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